

노인의 자살충동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 관련 변인과 사회심리적 변인

전 혜 정(연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부교수)

이 명 근(대한노인회 노인상담총괄본부 본부장)

김 혜 선(대한노인회 노인상담총괄본부 상담실장)

김 상 식(대한노인회 노인상담총괄본부 전문위원)

윤 지 은(연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박사과정)

노인인구의 증가와 함께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자살자 수도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노인 자살자 수는 1990년 314명에서 2007년 3,541명으로 약 11.3배 증가하여(통계청 2007), 노인 인구 증가 비율(2.2배)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연령별 자살 증가율에서도 65세 이상 노인의 자살률이 일반 인구군보다 4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 2008). OECD 사회통계지표에서 우리나라의 경우 2006년을 기준으로, 65~74세 노인의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59.8명(미국 2005년 12.5명, 일본 2006년 28.8명), 75세 이상 노인의 자살률은 97.3명(미국 2005년 16.8명, 일본 2006년 29.6명)으로 OECD 국가 중 노인 자살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의 노인자살 문제의 심각성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의 자살충동과 관련된 가족관련 변인과 사회심리적 변인을 규명함으로써 노인들을 위해 일하고 있는 현장 실무자들에게 현실적으로 유용한 전략을 세울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 궁극적으로 노인 자살을 예방하고자 하는 것이다.

연구대상은 전국의 대한노인회소속 노인으로 조사원에 의한 방문면접을 통해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최종적으로 667명의 노인의 응답이 분석되었다. 노인의 자살충동은 지난주에 자해나 자살을 생각해 본적이 있는지, 계획한 적이 있는지, 지금 죽고 싶은지 등에 관한 질문을 통해 측정하였다. 통제변인으로 투입된 인구학적 변인으로 연령, 성별, 거주지, 월수입, 종교유무, 경제적 어려움 여부가 측정되었으며, 사회심리적 변인으로서는 우울감, 행복감, 사회적지지,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의 수를 조사하였다. 우울감은 Bradly & Rotheram-Borus(1990)의 연구를 참고하여 The Tree Group에서 개발한 우울감 척도를 활용하여 8개 문항 4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가족관련 변인으로서는 배우자유무, 자녀수, 가족갈등, 배우자와의 갈등여부, 자녀와의 갈등여부, 배우자와의 사별여부, 자녀와의 사별여부, 독거여부가 조사되었다. 자료 분석방법은 SPSSWIN 17.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노인은 사회적지지가 낮을수록($\beta=.180, p<.01$), 우울증상이 높을수록($\beta=.047, p<.05$), 가족갈등이 많을수록($\beta=.570, p<.01$) 자살위험군에 속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녀수가 적을수록($\beta=.142, p<.10$), 그리고 자녀와의 갈등이 많을수록($\beta=.545, p<.10$) 자살위험군에 속하는 경향성이 발견되었다. 본 연구결과, 노인 자살의 예방을 위해 노인의 정신건강과 더불어 가족문제에 대한 적극적 개입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노인의 사회적지지가 자살충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는 자살위험이 높은 노인에게 보다 집중적인 개입을 위해서는 노인과 접촉기회가 많은 사회적 지지체계의 다양한 활용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